



전사적 역량 총집결 특별 재난방송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이 24시간 함께합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하루 24시간을 관통하는 재난방송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지난 4일부터 가동했다. 이는 KBS 1TV에서 방송되는 뉴스, 다큐, 정보 프로그램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특별편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보다 밀도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 '공동체의 협력과 배려'... 힘내라! 대한민국!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공동체의 협력과 배려'라는 방송 기조 아래 재난방송 전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을 자극하지 않고, ▲확인에 재확인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체의 상호 협조를 이끌어낸다 등을 프로그램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특집뉴스와 뉴스특보를 종일 방송하면서 <아침마당>, <6시 내고향>, <더 라이브> 등 주요 프로그램들도 '코로나19' 관련 아이템을 적극 반영해 타 방송들과 차별화된 재난방송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를 만들어 '대국민 응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가수 이승기, 요리사 이연복 등 유명인들과 일반 시청자들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짙막한 영상으로 편집해 하루 5~6회씩 방송하고 있는데, 이 영상들은 KBS뉴스 홈페이지(news.kbs.co.kr #힘내라 대한민국)와 유튜브 KBS뉴스 계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힘내라 대한민국!

■ 24시간 재난방송! KBS 뉴스특보 도달률 83.7%

1TV 전체를 단일 프로그램으로 묶는 24시간 종일 재난방송 체계는 고품질 재난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한 과감한 시도다. 그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TV, 특히 KBS에 대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의 정보취득 경로 및 정보수요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 취득 경로로 1순위와 1+2순위 모두에서 TV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이 포털사이트였다(1순위: TV방송 52.4%, 포털사이트 32.2%, 1+2순위: TV방송 74%, 포털사이트 69.9%). 정부 홈페이지는 1순위에서 4.3%,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는 1+2순위에서 18.9%의 응답을 얻어 세 번째로 높은 정보취득 경로로 나타났다. KBS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도달률 역시 높았는데, KBS 뉴스특보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무려 83.7%였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일간 KBS 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응답률 7.79%)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 연령, 권역별 비례 할당방식으로 1,061명을 표집(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했다.



<코로나19 뉴스특보 도달률>

■ 지역 밀착 KBS 재난방송, '코로나19' 국면 큰 호응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1월 20일부터 재난방송 체제를 가동한 이래,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및 소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한 소식을 해당 지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히 전하기 위해 9개 총국에서도 자체적인 재난방송을 적극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뉴스는 지역의 자체적 재난방송이 아니었다면 상세히 다루기도 어려웠고,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집단확산이 본격화된 2월 마지막 주 대구·경북 <뉴스7>의 시청률(11.5%)은 수도권 <뉴스7>(9.1%)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다.(닐슨코리아 기준)

■ '개학 연기'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특별편성

KBS는 정부의 개학 연기 조치에 발맞춰 3월 23일부터 TV와 라디오, 디지털미디어 등 KBS의 전 채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특별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1TV에는 교양과 지식 중심의 프로그램이, 2TV에는 글로벌 과학·문화 다큐 중심의 프로그램이 매일 5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편성됐으며, 1FM과 2FM 등 라디오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 청소년 대상 아이템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한편,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이상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택근무 권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구내식당 식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재기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취재진과 지원인력들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청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 발생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지역의 취재 일선에 있었던 대구 방송총국 정혜미 기자에게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들어왔다.

확진자 '1명'의 충격... 그 후로 멈춘 일상



정혜미 기자
대구방송총국

조근(아침 일찍 출근하는 당번) 날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사건, 사고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시청 출입 기자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 “대구에 확진자가 나왔다네”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첫 확진자

였다. 바로 특보체제로 들어갔다. 1보를 내고, 전화 연결 리포트를 준비하고, 촬영기자들은 MNG 연결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고... 평화롭던(?) 보도국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었다.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순간,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는 있었지만 초기 단계였고, 당시만 해도 대구는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확진자의 90%가 대구, 경북 지역이 됐지만. 첫 확진자가 나오기 무섭게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어갔다. 지난 2015년 당시 메르스를 겪긴 했지만, 이번엔 전파 속도가 달랐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날마다 새로운 상황이 쏟아졌다. 곳곳에서 방역 혼선이 생겼고, 병상과 의료진은 부족하고, 사람들의 혼란과 불안은 커져만 갔다.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하는 취재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설 틈 없는 하루하루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곳곳에 감염 우려... 현장 취재기자의 딜레마

사건, 사고가 나면 늘 '현장'으로 갔다. 재난상황도 예외일 수 없지만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르다. 감염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현장.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확진

환자들이 모이는 대학병원으로 현장 취재를 갔고, 그곳에서 현장중계를 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부터 대구지역 대형병원의 선별진료소에는 수백여 명의 의심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KBS 중계차 위치는 선별진료소 앞. 수십여 명의 의심 환자들 곁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안했고 걱정도 됐다. 혹시 내가 고위험군이 되는 건 아닐까. 혹여나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이 커졌다. '셀프 방역'이 최선이였다. 현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행히 위험한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취재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평소에는 취재원을 웬만하면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현장에서 촬영도 했지만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만남 대신 전화 취재가 많아졌다. 심지어 마스크 대란 취재 중 길에서 인터뷰를 하던 한 시민은 저에게 “기자 아가씨, 우리 한 2m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취재 현장의 풍경도 바꾼 것이다.

마스크 대란? "취재진도 마스크 없어요"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 대구지역 취재진도 상황은 비슷했다. 현장 취재는 매일 나가야 하는데, 마스크는 떨어져 가고... 약국 갈 시간조차 없었다. 물론 약국에 가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겠지만. 회사에서 몇 장씩 주는 마스크로 근근이 버텼다. 마스크가 없어 쓰던 마스크를 몇 날 며칠씩 쓰는 후배들도 있었다. 마스크 대란을 취재하지만 정작 취재진 역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씁쓸한 상황들을 마주해야 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서너 시간 줄서는 것은 기본이요, 직장까지 못 나가고 마스크를 구하려 다니는 시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역 물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로 집계됐을 때, 대구 도심이 텅텅 비기 시작했다.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도로 위 차량도 크게 줄었다. 변화가에서도 사람 찾기가 힘들어졌다. 난생처음 보는 풍경. 그럼에도 희망은 있었다.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안 받는 임대인부터, 재고가 많이 남은 가게의 음식을 팔아주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 마스크를 기부하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식당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그래도 살아가야죠”, “다시 힘을 조금씩 내야죠”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지만, 많은 시민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된 지금, 대구는 이제 막 '코로나19' 확산세를 겪기 시작한 많은 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될 것이다” 최근 대구를 취재한 이언 패널(미국 ABC특파원)의 말이다. “이곳에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정적, 고요함만 있다” 그렇다. 불안과 혼란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완전히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고 있다는 것. 무작정 움츠러들지 않으면서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우리는 전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방역 체계'를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새 프로그램 소개

“이런 토크 콘서트도 없습니다”

2020 KBS 특별기획 **인생.맛.짱** **도올학당 수다승철**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도올 김용옥 교수와 가수 이승철이 나섰다. 지난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도올학당 수다승철>은 매회 특별 게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도올은 옛 선인들의 지혜를, 이승철은 위로가 되는 음악을 선물할 예정이다.

인간을 말하는 철학자와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의 이색 조합!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3월 11일)의 진행을 맡은 이승철은 <도올학당 수다승철>이 시사교양이 아닌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에 가깝다며 포맷의 참신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승철은 “도올 선생은 순수하고 유머가 많은 분으로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선생님의 웃음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게스트들과 어울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과감히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올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 대중들과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승철이밖에 없다”고 화답해 30년 인연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별한 게스트 + 승철의 공감 토크 + 도올의 철학 솔루션

<도올학당 수다승철>은 매회 다른 주제로 엄선된 도올의 '강연'과 승철의 '수다' 그리고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자유토크와 이에 대한 도올만의 명쾌한 해답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회(3월 11일)와 2회(3월 18일) 게스트는 평소 도올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정도라는 배우 정우성. 정우성은 1회 '배움의 즐거움'에서는 고교 시절 자퇴했던 사연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2회 '사랑과 자비'에서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UN난민기구 봉사활동 이유 등을 털어 놓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강연과 미니 콘서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교양과 예능을 넘나드는 <도올학당 수다승철>은 배우 김수미와 김응수, 형사 김복준 씨 등과 함께 '삶과 죽음', '의리와 대의' 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방송될 나머지 10편이 어떤 재미와 감동을 줄지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 2TV

‘코로나19 성금 모금’, 21일만에 62억여 원 모여

KBS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이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 속에 시작 21일만에 모금액이 62억 원(3월 19일 기준)을 넘어섰다. KBS는 지난달 27일부터 <아침마당>, <6시 내고향>,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며, ARS와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등을 통한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특히 통화당 5천 원이 기탁되는 ARS 모금의 경우 20만 5천 통화를 넘기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



미디어기술연구소-LG유플러스, ‘버티고’ 기술 활용 차세대 영상서비스 MOU 체결

KBS 미디어기술연구소와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버티고(VERTIGO)’ 기술을 활용한 5G 차세대 영상서비스 제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미디어기술연구소가 지난해 개발한 ‘버티고’는 초고해상도(8K) 영상과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편집 시스템으로, 촬영된 풀 영상을 모바일 시청에 적합한 세로형 영상으로 편집·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버티고’에 탑재된 AI 기술은 영상 속 등장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주기 때문에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1대의 카메라만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멤버 별 직캠 영상(개별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버티고’ 기술 활용의 저변을 넓히고, 신규 사업모델 발굴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순례-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 URTI 특별상 수상

KBS 대기화 다큐멘터리 <순례>가 URTI (국제 라디오·TV 연맹)이 수여하는 특별상인 마르탱 필리피 상(Martine Filippi Award for Discovery)을 수상했다. <순례>는 지난 2017년 KBS가 영화적 전개 방식으로 제작한 4부작 휴먼다큐멘터리로, 이번 특별상은 그 가운데 1편인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연출 윤찬규, 신재국, 김한석)가 받았다. <순례>는 앞서 ‘20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2018 백상예술대상 TV부분 예술상’ 등 국내 주요 방송상을 휩쓸었고, ‘2018 뉴욕페스티벌 TV&필름상’에서 다큐 부문 금상을, ‘광주우필름페스티벌’에서는 최우수다큐멘터리감독상을 수상해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유럽에서 열린 이번 URTI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음으로써 <순례>는 명실상부 전 세계가 그 우수성을 인정한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라디오 퀸의 화려한 귀환! <황정민의 뮤직쇼>

19년 동안 매일 아침, <황정민의 FM대행진>을 진행하며 청취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지난 2일, KBS 쿨FM <황정민의 뮤직쇼>를 통해 DJ로 복귀했다. 라디오 진행 당시 ‘황족’이라 불리는 팬덤까지 거느렸던 만큼 황정민 아나운서의 DJ 복귀는 라디오 청취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는 후문. 이번에는 아침은 아니지만 그녀만의 청량한 목소리와 깔끔한 진행으로 청취자들의 나른한 오후 시간을 깨워주며 다시 한 번 KBS 라디오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민의 뮤직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KBS 쿨FM(수도권 89.1MHz)를 통해 방송되며, 모바일 라디오 ‘KONG’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다.



‘KBS 국민패널 신규 가입 & 개인정보 갱신’ 이벤트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KBS 국민패널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 정보를 갱신하는 패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BS 국민패널은 KBS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시청자 설문조사단으로 2020년 3월 초 기준 약 21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KBS는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반응과 의견을 조사해 편성 및 제작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시스템 구축 후 지금까지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PSI)를 비롯한 약 1,600여 건의 설문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KBS 유튜브 ‘옛날티비’, 「10드」 서비스 개시... 10분 길이로 요약된 추억의 드라마 소환

최근 ‘레트로’ 열풍에 맞춰 KBS 유튜브 채널 ‘옛날티비’가 1970~90년대 KBS 인기 드라마를 10분 길이로 요약해 서비스하는 「10드」 시리즈를 이달부터 매주 2회(토, 일)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일, 「10드」가 선보인 첫 번째 드라마는 1994년 방송된 <느낌>. <느낌>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손지창, 김민중, 이정재, 우희진 등 청춘스타들이 총출동해 방송 당시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1위에 오를 정도로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작품이다. KBS는 앞으로도 「10드」 시리즈를 통해 1970~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KBS 미니시리즈와 주말연속극 등을 공개해 시청자들에게 그때 그 시절 ‘추억’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53명의 사우들이 오는 3월 31일 자로 정년을 맞는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2020년 1분기 정년퇴임식은 개최하지 못했다.

2020년 1분기 정년퇴임자 53명 명단

(직제/성명 가나다순)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박해령	심의실	윤희길	라디오센터	신상채	방송네트워크국	김현웅	광주방송총국
정화섭	심의실	김명우	시사교양1국	은문기	수신료국	전창주	광주방송총국
허진	심의실	김학순	시사교양1국	조성택	수신료국	김명순	광주방송총국
백인순	남북교류협력단	이은수	협력제작국	안유정	안전관리실	배태휴	광주방송총국
김정미	영상제작국	서양택	협력제작국	김정호	경영정보국	이수형	전주방송총국
박중윤	영상제작국	곽기원	드라마센터	김희열	경영정보국	윤점준	전주방송총국
함효주	영상제작국	강상구	콘텐츠사업국	김형성	경영관리국	신봉현	대전방송총국
김용대	영상제작국	김윤택	네트워크국	이동영	부산방송총국	송광석	대전방송총국
김은숙	디지털미디어국	김두현	중계기술국	허호영	창원방송총국	심용섭	청주방송총국
정진화	스포츠국	신현	보도기술국	여태길	창원방송총국	진재중	강릉방송국
김춘길	스포츠국	김주현	TV기술국	김영숙	대구방송총국	남주현	원주방송국
윤준호	해설위원실	이관한	TV기술국	김혁년	안동방송국	김경렬	원주방송국
이정연	라디오센터	김석기	기술관리국	전종대	포항방송국	고상수	제주방송총국
강병택	라디오센터						

KBS가 선사하는 봄맞이 드라마 3종 선물세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지치고 힘들지만, 어느새 봄은 시나브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KBS가 시청자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새 드라마 세 편을 미리 만나본다.

국내 최초 반려 로맨스!

수목드라마

어서와

남자로 변하는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여자의 미묘한 반려 로맨스 <어서와>가 올봄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KBS 수목드라마 <어서와>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음에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쁜 고양이 홍조(김명수 분)와 늘 누군가를 안아줘야만 했던 정 많은 김솔아(신예은 분)의 우연한 ‘한집 살이’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로, ‘반려 로맨스’라는 설정과 색다른 감성이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어서와>는 ‘홍조없이 신드롬’을 일으켰던 동명의 웹툰을 힘있는 연출력의 지병현 감독과 감성적 필력의 주화미 작가가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김명수, 신예은, 서지훈 등 개성 넘치는 청춘스타들과 안내상, 김여진, 전배수 등 명품 배우들이 출연한다. 올봄, 로맨스 마니아들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할 감성 청춘물 <어서와>로 잠자는 연애세포를 깨워보는 건 어떨까?

▶ 첫방송 3월 25일 수요일 밤 10시, 2TV



‘유쾌+발칙’한 이혼기!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라지만 장남(오대환 분)은 3년 전 합의이혼, 맏딸(오윤아 분)은 남편의 외도로 자의반 타의반 이혼, 노심초사 결혼식 치른 막내딸(이초희 분)마저 신혼여행지에서 파혼당하고... 마지막 희망이던 둘째딸(이민정 분) 역시 이미 이혼 절차를 마치고 부모에게만 비밀로 한 상태. 이런 ‘원수’같은 자식들을 둔 용두시장 닭강정 집 송영달(천호진 분), 장옥분(차화연 분) 부부의 삶은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다. 오는 28일 첫방송되는 새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부모와 자식 세대가 이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이혼이라는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며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낼 예정. KBS 주말드라마 특유의 유쾌하고 따뜻한 스토리가 흥행 불패의 신화를 또다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첫방송 3월 28일 토요일 밤 7시 55분, 2TV



두 남녀의 감성멜로 복수극!

2TV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

매일 저녁 안방극장에는 배신과 오해, 증오와 연민 속에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치열한 복수를 담은 감성 짙은 멜로가 찾아온다. 불의에 맞서다 벼랑 끝에 몰린 소녀 차은동(박하나 분)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힘없고 어린 소녀의 편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선 강태인(고세원 분). 그러나 그마저도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는데... <우아한 모녀> 후속으로 방송될 2TV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은 복수와 멜로를 오가는 밀도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 열전이 관전 포인트. 출연하는 작품마다 팔색조 매력으로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끈 박하나와 내공 있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의 중심을 이끌어갈 고세원이다. 길용우, 강신일, 이대연 등 베테랑 중견 배우들까지 함께 한다는 소식은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 첫방송 3월 30일 월요일 밤 7시 50분, 2TV

